

금호타이어 빛그린산단으로 이전 추진

'KTX 투자 선도지구사업'에 금호타이어 부지 포함 용역 발주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100인 시민 토크쇼'서 청사진 제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광주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고 기존 공장부지는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구청에서 열린 '100인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광주송정역 역세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KTX 투자 선도지구사업'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기존 부지를 포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와 광산구 및 금호타이어 노·사가 공론화를 통해 공장 이전과 역세권 발전을 함께 이뤄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구체적으로 역세권발전방향 연구용역과 공론화 합의 그리고 공장이전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쳐 공장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신규설비투자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지난달 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해 노조 측과 면담

하고 지난 2일에는 사측 관계자를 구청에서 만나 등 노측과 사측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시 용인에 있는 연구소(연구인력 500명)도 새로 조성

된 광주공장으로 이전하되, 이전 부지로는 접근성이 좋은 빛그린국가산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가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될 경우 상업지구와 융복합(산업·업무·주거·상업)지구를 연결하는 교통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빛그린산단과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도 극대화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속철도 역사와 관련해 선도지구로 지정받은 것은 광주송정역이 처음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역세권 발전을 함께 이뤄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용섭 "일자리·경제시장 될 것"

'민선 7기 100일' 회견

5대 정책 20대 전략 추진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이 군공항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광주송정역 및 광주역 개발 등 해묵은 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며, 임기 100일을 마쳤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속의형 조사와 여론조사를 섞은 공론을 거쳐 건설 찬반을 다루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다만 광주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은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몰렸다. '광주형 일자리'에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에 이 시장의 민선 7기 초반의 성과가 달렸다. 이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현대차의 광주 투자가 실현된다면 현대차 부품업체만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의 동반 투자도 가능하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시장은 4일 '민선 7기 100일'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00일간 구축된 인프라-시스템 바탕으로 5대 정책 20대 전략 추진하겠다"며 "광주가 가야할 길은 대한민국 미래 되는 것이며, 이 길에 150만 시민이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캐치 프레이즈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내걸었다. '가치'와 '경제'를 동시에 만족시키겠다는 의미다.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이며,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미스매치'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당사자 간 조율·중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가 자칫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각의 우려다.

이 시장은 "광주가 가야할 길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경제시장이 되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도시공사 공동주택 원가공개 긍정적 고민"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가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시공사가 제공하는 공동주택의 원가공개를 긍정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노경수 후보는 "국토부도 공개항목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공사도 공개항목 확대를 긍정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광주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노 후보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도시공사의 공동주택 원가공개가 현실화할 지 주목된다.

노 후보는 경영능력 등에 대해서는 "재정, 회계, 노조 문제에 부족한 점이 솔직히 있다"며 "외부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비상임이사들과 수시로 만나 고견을 들도록 하겠다"고 "열린 경영"을 약속했다.

이날 정무장 시의원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인간관계로 거절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후보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시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는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차기 사장 임명 여부는 이달 중순께 결론날 예정이다. 도시공사 사장은 3년 임기로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언론 외면하는 포털



강호상 국회의원

지난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일보 등 전국 주요 9개 지방신문사의 주도로 포털을 이용한 지역신문의 공동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9개 언론사 대표 그리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본 의원은 물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등 여야 의원 5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막상 패널로 참석했던 한 교수의 세미나에서 "오늘 이른 행사도 네이비나 다음에는 소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다. 이는 결국 사실이 됐다. 이 세미나 뉴스는 포털 메인화면에 노출되지 않았고, 검색해 들어가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씁쓸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뜨거웠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한마디 하면 포털의 메

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포털의 지역 언론 홀대로 인해 독자 수와 광고수익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경영 압박과 저널리즘 기능 약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언론의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들은 지역언론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는 신문구독료와 보급시스템, 그리고 광고 수입이 낮은 일간지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부가세·우편요금 할인도 하고 있다. 노르웨�훤

일주일간 네이버 메인, 지역기사 '0'

인화면을 장식했지만, 정작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주체인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네이버 뉴스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227건(일 평균 153건)의 기사 가운데 지방언론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역뉴스는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대구 폭염,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 초대형사건이 터져야 그나마 몇몇 중앙이나 통신·인터넷 매체를 통해 첫 화면에 노출되는 정도다.

이처럼 대형 포털의 지방뉴스 홀대 현상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온라인 뉴스 시장의 70%를 장악한 네이버에 선 하루 약 1300만 명이 뉴스를 읽고 있지만 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지역소식이나 의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구조이다.

지역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체, 건전한 지역여론 조성,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주도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

경연년을 겪는 신문에 대한 지원 및 25%인 부가세를 6%로 낮춰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언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미하다. 정부가 지역신문발전특별법과 지역방송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언론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시법이라는 특성상 안정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기금확충 방안 마련 등 지역언론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언론 기사를 포털의 첫 화면에 게재하도록 하고, 타항에서 고향신문 구독 시 구독료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본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출항민을 포함한 지역뉴스 소비자들의 편의와 알권리 충족은 물론, 대형 포털과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된 언론환경 속에서 지역언론의 선순환 발전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 홈페이지 운영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5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팝업창 또는 '시민참

여 플랫폼 바로소통'(http://barosotong.gwangju.go.kr)에서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는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공론화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소통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Approved Partner Heat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농협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